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보도자료**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날짜 : 2015년 11월 4일 (水)  
문의 : 한선범 정책국장  
(010-4731-4045)

서울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3층 / <http://2015peoplepower.tistory.com>

“총궐기로 불통, 반민생 박근혜 정권 심판할 것”  
**2008년 촛불 이후 최대 규모 10만 민중총궐기**  
전국 참여의지 뜨겁다. 연말 정국 각계 투쟁분위기 확산 전망

### 민중총궐기 언론팀 기자간담회 취지

현장에서 국민들을 만나시는 기자님들도 느끼시고 계시겠지만, 정말 먹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일자리는 없고, 그나마 있는 자리는 100만원 남짓한 수준이고, 그나마 비정규직입니다. 전월세난으로 주거비용이 오르는 반면, 소득은 오르지 않아 가계부의 적자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가난하고, 일자리가 없으니 장사도 잘 안되고, 경쟁업체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농업포기 정책으로 농민들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청년들은 3포, 5포에 이제는 7포 세대라고 하고, 이 나라를 ‘헬조선’, ‘망한민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생이 어려운데, 이 정부는 재벌과 부자들 편만 들고 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이어 정부는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와 ‘일반해고제’를 도입하고, 비정규직 사용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장기근속 노동자의 임금을 깎고, ‘저성과자’라는 이름아래 마음대로 해고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노예처럼 부려먹는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자고 합니다. 금지돼왔던 파견 비정규직도 사실상 전면 허용하려 합니다.

쌀값이 폭락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충분히 중단할 수 있는 밥쌀용 쌀 수입을 계속하고 있으며, 셀 수도 없는 ‘물지마 FTA’들에 이어 이제는 ‘TPP’까지 맺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TPP의 협상 과정에서 쌀 시장의 추가개방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재개발, 도시정화라는 이름아래 수많은 노점상, 철거민들이 여전히 일터와 집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은, 경제위기의 고통을 민중에게 전가하고, 재벌과 부자들만을 위한 위기 탈출책입니다.

정부가 그러면 야당이라도 제 뒀을 해야 하는데, 야당조차 제 앞가림에만 급급한 채 민중의 여망을 정치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생의 위기와 정부의 재벌-부자 편향 정책, 하소연할 곳이 아무 곳도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민중의 분노는 쌓이고 쌓여 폭발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민중총결기 투쟁본부는 이러한 민중의 분노를 받아 안아, 이 정권을 심판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오는 11월 14일 민중 총결기를 개최합니다.

그간 노동, 농민, 빈민, 청년 등 대중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8월경부터 제 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민중총결기를 기획하고, 9월 9일 총결기 투쟁본부를 발족하였으며, 그간 각 단체들과 지역과의 간담회를 통해 총결기의 필요성을 호소해 왔습니다. 그 결과 많은 단체와 국민들이 총결기 참여를 결의하여 현재까지 집계로는 10만이 넘는 이들이 민중총결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총결기로 이 정권을 심판하자!”는 민의는 들끓고 있습니다.

그간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회와 시위에 대한 보도는 “왜 집회를 하는지”보다, 집회로 인한 교통 불편과 시위대의 폭력 문제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우리는 이에 대해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 당국은 집회를 ‘불온시’하고 ‘진압’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표현의 자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10만 이상의 민중이 서울로 모여야 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의 요구에 귀 기울여 화답해야 합니다. 이번 민중총결기에서 각계 대표들은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인 답변을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우리들과 대화를 거부하고 요구 수렴을 외면한다면 이날 민중총결기 투쟁은 완강하게 계속될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호소 드립니다. 이날 서울 도심은 잘못된 정부의 불통과 독선,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야만과 노동 착취, 노동개약을 막고자 하는 민중들의 절박한 의지로 가득찰 것입니다.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날 민중총결기는 바쁜 일상으로 함께하지 못한 모든 노동자 민중, 시민들의 미래를 위한 투쟁입니다. 정부가 바로서야 민생이 바로 섭니다. 함께해주세요. 투쟁은 때론 불편하고 희생이 따릅니다. 그러나 잠시 불편을 감수하고 민중이 단결한다면, 재벌이 아닌 우리 서민들을 위한 미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날 많은 언론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민중총결기 언론사업팀 연락처**

조병옥 대변인(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 010-6566-2446

주제준 언론팀장(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 : 010-7599-2740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 : 010-4806-3142

이수정 국장(공안탄압대책회의) : 010-3360-9824

한선범 국장(한국진보연대) : 010-4731-4045

# 민중총궐기 개요 및 경과

## 1. 민중총궐기 개요

### 1) 필요성 및 의의

- 박근혜 정부와 재벌 대기업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집결시키고, 표출하는 대회
- 실수 10만 규모의 서울 집결 투쟁을 통해 박근혜 정권과 재벌의 독주를 막아내는 과정.
- 시민 사회 및 민중연대 강화의 계기점 마련. 진보민중진영의 대단결의 자리

### 2) 행사 개요

- 제목 : 박근혜정권 퇴진! 뒤집자, 재벌세상! 민중총궐기
- 일시 및 장소 : 2015년 11월 14일(토), 16시, 광화문
- 방식 : 전국 집중 방식,  
노동자대회 / 농민대회 / 빈민대회 / 학생대회 / 시민대회 를 사전대회 방식으로 진행하고 이후 민중총궐기로 집결
- 규모 : 10만 이상.
- 주최 :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 대회의 상 : 부문대회를 마치고 광화문으로 4시까지 집결

◎ 대회 프로그램

- 사회 : 민중총궐기투쟁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 : 투쟁본부 공동대표
- \* 주요대중조직 및 민중의힘 대표들이 한꺼번에 올라가 준비된 연설문을 읽는 방식

◎ 마무리대회

- 사회 : 민중총궐기투쟁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 등

※ 당일 상황실 인권침해감시단 운영 예정.

### 3) 참여단체

21C한국대학생연합,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노동자연대, 민권연대, 민대협,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민주주의국민행동,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의힘, 변혁재장전, 보건의료단체연합,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알바노조,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장그래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사이버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유니온, 청년좌파, 청년하다, 추모연대, 통일광장,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유가협, 계승연대, 통일의길, 노동전선,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등 53개 단체

지역 333개 단체

### 4) 11대 요구안

- 일자리노동
  -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노동계약 중단
  -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모든 서민의 사회안전망 강화
  
- 농업
  - 쌀 수입 저지 / TPP 반대
  - 쌀 및 농산물 적정 가격 보장
  
- 민생빈곤
  - 노점단속중단, 순환식 개발 시행
  -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 청년학생
  - 재벌 공간 열어 청년-좋은 일자리 창출 요구
  - 대학구조조정 반대

○ 민주주의

- 역사왜곡 중단, 역사교과서 국정화 계획 폐기
- 공안탄압 중지, 국가보안법 폐지, 국정원 해체, 양심수 석방

○ 인권

- 차별금지법 제정, 여성.이주민.장애인.성소수자 차별 및 혐오 중단
- 국가인권위 독립성 확보, 정부 및 지자체 반인권행보 중단

○ 자주평화

- 대북적대정책폐기, 남북관계개선! 5.24조치해제, 민간교류보장!
- 한반도사드배치반대, 한미일삼각군사동맹중단! 일본의 군국주의 무장화 반대!

○ 세월호

- 세월호 온전한 인양,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 안전사회건설

○ 생태환경

-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 계획 폐기
- 신규원전 건설 저지 / 노후원전 폐기

○ 사회공공성

- 의료 철도 가스 물 민영화 중단
- 제주 영리병원 추진 중단, 공공의료 확충

○ 재벌책임 강화

-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로 최저임금 1만원 실현
-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하청노동자 직접고용 참여 등 재벌 사용자 책임 이행

## 2. 주요 일정

### 1) 11월 13일까지

- 11.04(목) 민주행동 농성(~11.14) / 서울파이낸스센터 앞
- 11.07(토) 세월호 특별법제정 1년 집회 / 청계광장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4차 범국민대회 / 청계광장
- 11.09(월)전국대표자회의 및 투쟁선포식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 11.10(화) 국민투표 집중 실천의 날
- 11.11(수) 국민을 벼랑끝으로 모는 5적, 집중 투쟁의 날  
(청와대 / 전경련 / 국회 / 강남구청 / 새누리당 등)
- 11.12(목) 새정치민주연합 공개면담
- 11.13(금) 대표자 청와대까지 행진

## 2) 부문 대회

	부문/산별대회		일시.장소.규모	주최/주관
농민	못살겠다 갈아엎자 농산물가격보장 농민생존권쟁취 전국농민대회		- 14시. - 태평로 - 3만명	농민의 길 (전농.전여농.가농.친농연)
빈민	빈민.장애인 생존권 쟁취 민중총궐기		- 13시:노점상대회 - 서울역광장 - 1만명	빈민해방실천연대, 전국빈민연합,전 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청학	헬조선 뒤집는 청년총궐기		- 14시.동화면세점 - 청600/학800	청년총궐기 기획단
시민	역사쿠데타 저지! 세월호 진상규명! 민중민생수호 범시민대회		- 13시 30분 - 대학로 - 3천~5천명	민주주의국민행동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반재벌	“노동계약 저지, 자본을 향한 노동자 민중의 맞불“ 재벌사내유보금환수 결의대회		- 13시 - 태평로 삼성본관 - 500~1천명	재벌사내유보금환수운동본부
노동	“전태일 열사정신 계승 2015 전국노동자대회“		- 14:30. - 시청광장 - 10만	민주노총
<b>민주노총 산별 사전대회</b>				
1	서비스	1만	12:30. 시청광장	서비스연맹
2	대학	1천5백	보신각	
3	교육공무직	1만	한빛광장	
4	전교조	3천~5천	상공회의소	
5	언론	300	프레스센터앞	
6	건설	5천	SK서린	플랜트 대우건설 집회 여부

7	사무	2천	서대문 농협	
8	공무원	3천	파이낸스	
9	화섬	1천	시청 동편인도	
10	민주일반	2천	서울 노동청	
11	화물	5천	경향신문 사 앞	

### 3) 지역 대회

- ▣ 경기: 경기총궐기 결의대회 10.27(화) 19:00/ 수원역
- ▣ 인천: 인천민중대회 10.28(수) 19:00/ 부평역 쉼터공원
- ▣ 부산: 부산시국대회 10.28(수) 19:30/ 부산역
- ▣ 서울: 서울지역 민중대회 10.30(금) 19:00/ 시청광장 동편
- ▣ 전북: 전북민중대회 10.30(금) 16:00/ 세이브존(구코아백화점)
- ▣ 광주: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광주시민권기대회(가) 10.30(금) 17:30/ 장소 미정
- ▣ 충북: 충북민중대회 10.30(금) / 청주 상당공원
- ▣ 대구: 대구경북 민중대회 10.31(토) 14:00/ 장소 미정
- ▣ 제주: 제주 민중대회 10.31(토) 16:00/ 제주시청
- ▣ 울산: 민중총궐기 울산대회 11.4일(수) 18:30/ 장소 미정

### 4) 향후 계획

- ▣ 2차 민중총궐기
  - 2015년 12월 중, 전국 동시다발.

## 3. 준비 상황

### 1) 조직 현황

#### (1) 조직 구성

- 16개 광역으로 투쟁본부, 준비위, 시국대회 준비위등 조직구성완료
- 경남 9개시군에서 시군조직 건설 및 간담회 교육등으로 추진중.

- 전남 5개시군(강진,나주,화순,장흥,구례) 투쟁본부 건설 나머지 교육 간담회 추진
- 경기 민주행동 시군 조직 건설을 총궐기 준비와 맞물려 준비하고 있음  
(고양,성남,수원,용인,안양,군포,의왕 준비위결성 성남,용인,고양 1차 준비모임 함)
- 서울 서부지역추진위 구성 서대문,마포,은평구등 10여개 구단위 추진위 구성

## (2) 참가 현황 : 전국 333 (대전/충남/경기 등)

- 민중총궐기투쟁본부 53개 단체,
- 서울준비위 16개, 인천준비위 8개, 경기준비위 15개, 대전민중의 힘 단위, 충북준비위 14개, 전북준비위 18개, 광주진보연대 13개 단체와 민주광주행동 중심으로 투쟁, 전남투쟁본부 8개단체 및 시군투쟁본부, 부산시국대회 준비위 50여개 단체, 울산준비위 13개 단체, 경남준비위 15개 단체와 시군준비위, 대구 경북 준비위 20개 단체, 제주준비위 22개단체

## 2) 각 지역(부문)별 현황

### (1) 지역별 현황

#### ■ 서울 : 1만 목표

- 주1회 구별 캠페인과 21일부터 매주 화요일 공단선전  
(점심시간: 구로, 성수, 강남, 가산등)
- 매주 화, 목요일 중부노련 촛불문화제
- 9개구 1개 단체부터 매주 캠페인과 함께 국민투표를 진행
- 서울지역 민중대회 10월 30일(금) 19:00 시청광장(동편)

#### ■ 경기 : 2만 목표 (노동: 농민: 지역: 7700)

- 12일부터 1인시위(매일) 주/1회 거점실천/ 민주노총 농성(12일~.수원역)
- 1차 3만장 총궐기 포스터 부착 / 2차(3만장-시민대회)
- 매주 목요일 촛불(수원역 농성장) / 주1회 지역거점 실천때 국민투표.
- 26, 27일 노동현장 공동선전전(총궐기 준비위원회 차원으로 40명 구성)
- 11월 첫째주 농촌 장날 공동선전전
- 경기총궐기 결의대회 10.27(화) 오후 19:00. 수원역

사전 실천 후 결의대회 진행

■ 인천 : 800 (노동:700, 지역100)

- 노동,시민,시민실천단 구성하고 20일 실천단 결의대회,
- 13일부터 매일아침 선전전, 15일(목) 국민투표 거점 캠페인
- 인천민중대회 10월 28일 오후 19:00. 부평역 쉼터공원

■ 강원 : 5천목표/ 시 군별 선언운동 진행

- 10월17일(토) 강원민중대회(14:00, 춘천시청)
- 민주노총 최종진 수석부위원장 참석
- 250명 참가, 집회후 간담회

■ 충북 : 2,500 목표 (농민:1,500, 노동: , 기타 )

- 10월 7일부터 매주 수요일 실천
- 충북민중대회 10월 30일 청주. 16:00. 상당공원 .
- 박석운 민중의힘 상임공동대표 참석

■ 대전 : 2,500

- 매일저녁 6시~7시 역사교과서 국정화 선전 서명운동 및 촛불문화제
- 대자보 쓰기 운동 진행중 / 역사왜곡 반대 현수막 200개 게시
- 민중총궐기 1분회 1현수막 계획
- 민주노총 거점 농성과 20일부터 5개구 거점 순회 선전시 국민투표진행
- 10월14일(수) 민주수호 민생활리기 대전 범시민대회(18:30, 대전도시공사앞)
- 박석운 민중의힘 상임공동대표 참석, 4~500명 참가

■ 충남 : 16,000 (노동:8,000, 농민4,000 진보 300)

- 10월 19일(월)부터 10월 30일(화)까지 각 시·군별 연석회의 진행
- 19일 천안시, 서태안 연석회의 시작으로 부여, 공주, 서천, 논산, 아산, 예산, 보령, 당진, 30일 세종시 추진예정(지역별 선전 및 조직 목표 세우기, 실천투쟁 계획에 대한 논의 및 토론)
- 10/28(수) 충남 투본 기자회견 / 10/30(금) 총궐기 지지회견 (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 10/29일(목) 각 시·군별 동시다발 기자회견, 현수막게시 (노동100개, 농민100개)

- 10/말까지 민중총궐기 관련 각 시·군별, 조직별 조합원 및 회원 교육진행
- 매주 2회 이상 대중 선전전 진행 : 방송차 이용 거리 선무방송, 현수막게시
- 11/2~11(수)까지 각 부분별 및 가능한 시·군 거점 농성 진행 : 촛불, 국민투표 진행

#### ■ 대구경북 : 5천 목표

- 총궐기 실천은 매주 화,금 오전 출근 선전전
- 노동개약 저지 결의대회/ 금- 저녁 국정교과서 반대 촛불
- 11월 3일 ~ 12일까지 진행
- 대구경북 민중대회 10월 31일(토) 14:00. 대구 반월당

#### ■ 부산 : 5천 목표

- 민중연대단체, 지역풀뿌리, 여성단체 순회 간단회 완료, 22일 정세강연회
- 매주 수요일 집회, 대자보쓰기, 총궐기신문 2회 총 24,000부 제작
- 26일 국정교과서반대 부산 전역 중고교 앞 1인시위
- 26일 4시 총궐기준비위와 권영국 변호사간담회, 10개 투표소 개설 예정
- 10월 30일 종일선전, 11/9~11 100곳 출근 1인시위
- 부산시국대회 10월 28일 19:30. 부산역

#### ■ 울산 : 5천 목표

- 5개구별 진보연대차원 민주노동 각5대
- 보궐 선거활동 중심으로 진행 국정화 및 노동개약 1인시위
- 22일 국정화 촛불 울산역 150명
- 현장조합원 매일 중식 선전전 조합간부 분회원 대동 1인시위
- 주1회 2회 진행 매주 목요일 국민투표 / 11월부터 구별 캠페인진행
- 민중총궐기 울산대회 11월4일(수), 18:30

#### ■ 경남 : 1만 6천 (노동 1만, 농민100대 4천, 민주행동1천5백 등)

- 시군구 조직 건설 등 : 합천 지역간부 결의대회(26일), 김해 민중대회(11/4), 양산 민중대회(10/21), 진주 지역간부 결의대회, 산청 대의원대회(10/21)등
- 도시권 : 매주 수 선전전, 농촌지역 : 장날 선전전, 시군 선전 순회단 운영
- 경남노동자 신문 발행 및 1인 현수막부착

- 매일 주민소환 활동 병행
- 10월 17일(토) 경남민중대회(14:00, 창원시 만남의 광장)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참석, 1,200명 참가

#### ■ 전북 : 1만 목표

- 부문단체별 릴레이션언
- 매주목요일 단체별 거점 선전(전교조사거리, 평화동사거리, 한옥마을,  
해금장 사거리, 봉동 사거리, 전북대 구정문)등 7회
- 전북민중대회 10월30일(금) 오후 17:00. 세이브존(구코아백화점)  
한국진보연대 문경식 상임대표 참석

#### ■ 광주 : 1만 목표

- 단체별 교육, 간담회, 총회/ 10만 유인물, 대자보운동, 차량스티커등
- 전교조 10/29일 분회장 학교. 11월 초 분회별 총회 추진
- 매주 수요일 거점선전 때 국민투표 결합
- 16일 민주노총(노동개약 저지 집회 300여명)/ 17일 국정화 반대 시민대회 600여명.
- 총궐기 승리 민주노총 체육대회(25일- 1,000여명 참가)/
- 30일 민중대회, 31일 교과서 국정화 반대 집회 등.
- 민중총궐기 성사를 위한 광주민중대회 10월 30일(금) 17:30/상무지구롯데마트 앞

#### ■ 전남 : 1만 목표

- 농민(10,000 포스터, 방송차량)/ 여성농민회(1,000 포스터 선전전)
- 민주행동(700 대자보 쓰기, 유인물 배포), 아침선전, 중식선전, 저녁 촛불 등
- 수요선전 및 장날선전 / 대학교 앞 캠페인때 국민투표 결합
- 10월 17일(토) 전남 노동개약 저지 민중대회(15:00, 순천역)  
문경식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참석

#### ■ 제주 : 500 목표

- 노동/농민/여성/자치/평화/환경등 반박근혜 선언운동 10월 중순 추진
- 매주 목요일 주요 거점 현수막 및 선전물 배포, 퍼포먼스등 동시다발 진행
- 제주대학교 정문 및 학생회관 선전물 배포

- 노동개약 국민투표주 1회 선전전 시 병행
- 제주 민중대회 10월 31일(토) 16:00. 제주시청  
전여농 강다복회장 참석

## (2) 부문별 조직현황

### ■ 민주노총 : 10만 이상

- 금속 2만/ 공공 3만/ 서비스 1만2천/ 건설 5천/ 공무원 5천/ 대학 1천5백 / 사무 2천/ 언  
론 300/ 전교조 3~5천
- 보건의료 4,000(지부별 간담회, 10.27 2차 조정신청(10/27),
- 교육공무직본부/ 화물연대 / 공공부문 비정규직 등 2만

### ■ 전농 /전여농 : 3만 목표

- 2만5천가량 확인, 3만 목표로 중앙 및 광역별 현장순회, 지역별 현수막1~2백개 부착 등
- 전여농 : 목표:5,000, 현장순회, 참가자 신청카드.

### ■ 빈민 : 1만 목표, 재래시장, 5일장 등 모든 노점상 철시 후 총궐기 대회 참가 결의.

### ■ 청년.학생 : 청.학단체 결집, 총궐기 기획단 구성, 목표 : 청600+학800

## 4. 발족 선언문

###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발족 선언문**

오늘 우리는, 나날이 더해가는 박근혜 정권의 폭정에 맞서, 이 땅의 민주, 민생, 평화를 쟁취하기 위한 민중의 총궐기를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지난해 294명의 생명을 앗아갔던 세월호의 비극이 올해 메르스 사태로 재현되어 36명의 생명이 또다시 스러졌다. 세월호 참사 당시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했던 이 정권은, 무책임한 대응과 병원 공개 거부로 또다른 세월호 참사를 만들어내고야 말았다. 결국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민중의 안전과 생존에는 눈꼽만큼의

관심도 없는 이 정권의 본질이 또다시 드러났다.

이 정권의 '문지마 대미 추종'과 '대북 적대정책'은 이 땅의 정의와 평화를 실종시켰다. 이 정부는 광복 70년과 '한일수교 50주년'을 대등한 위치에 놓고, 전범이자 지난 지배자였던 일본의 재무장과 집단적지위권 행사를 사실상 찬성하였으며, 한일 군사협정 체결로 한일 군사동맹을 꾀하고 있다. 또한 이 정부는 남북대결정책 고수와 흡수통일 노골화로 이 땅에 전쟁의 긴장을 높이고 있으며, 사드 배치를 추진하며 이 땅을 미국의 대중 군사대결의 전초기지로 만드는 위험천만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작금의 경제위기는 금융화, 규제완화, 공공부문의 민영화(사유화), 노동유연화(고용불안정화) 등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통해 민중의 부를 빼앗아 소수에게 결집시킨 대가였으며, 따라서 위기의 해법은 빼앗긴 부를 민중에게 돌려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오히려 수출, 부동산, 의료-철도-가스-물 민영화, 노동 유연화를 더욱 강화하며 재벌과 부자들의 배를 채우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며,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임금피크제로 전체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고, 일반하고 도입으로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며, 비정규직 사용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 노예계약을 연장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하고, 안그래도 사측의 불법, 탈법이 난무하는 노동시장을 무법천지로 만들어, 노동자를 노예로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박근혜 정권은 한-호주, 한캐나다, 한중 FTA를 밀어붙이고, 이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까지 강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협상 한 번 제대로 해보지 않고 쌀 시장을 관세화 해 전면 개방하였고, 그러면서도 쌀 시장 개방으로 이제 수입할 의무가 사라진 밥쌀용 쌀 수입은 그대로 지속하고 있다. 그 결과 쌀값은 폭락하고, 국내 식량주권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쌀 농업이 위기에 처했으며, 이 나라 농민의 생존권은 마지막 벼랑에 섰다.

재개발, 도시정화라는 이름아래 자행되고 있는 빈민에 대한 탄압도 쉽없이 지속되고 있다. 노점상, 철거민들을 사지로 내모는 이 정권의 만행은 제2, 제3의 용산 참사를 예비하고 있다.

건설자본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려는 이 정권의 노력은 이제 설악산 등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를 추진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민중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후 원전 재가동과 신규 원전 건설이 지속되고 있다.

이 땅의 청년들은 실업자로, 알바로, 비정규직으로 내몰려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폭등한 집값과 전세가, 과도한 월세는 이들을 3포, 5포, 7포 세대로 내몰고 있다. 이렇게 연애, 결혼, 출산, 내집 마련, 대인관계도 모자라 꿈과 희망까지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 청년들은, 이제 이 나라를 '헬조선', '망한민국'이라 부르며 "이 땅을 떠나고 싶다"고 절규하고 있다.

민중의 현실이 이렇게 참혹함에도 진실은 가려지고, 민의는 왜곡되며, 민주주의는 실종되었다. 정권의 실정에 맞서야 할 거대 야당은 싸우려 들지 않고 제 앞가림에만 급급하고, 선거를 통해 의석을 배출한 진보정당은 ‘종북몰이’에 의해 강제 해산당했다. 사법부는 권력의 입맛에 맞는 편향적 판결을 일삼고, 언론은 최소한의 부끄러움조차 없이 정권의 저열한 나팔수가 된 지 오래이며, 정보기관은 국민을 해킹하고, 진실을 말하려는 이를 위협하고 있다.

이렇듯 보호해 줄 곳도, 함께 싸워줄 곳도, 진실을 알려줄 곳도 없는 이 암담한 현실, 쌓이고 쌓여 폭발 직전에 이른 민중의 분노는, 이제 민중 스스로 꺾기하여 빼앗긴 권리를 되찾을 거대한 투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빼앗긴 안전과 평화, 민주주의와 민생을 되찾고자 하는 민중의 굳은 의지를 받아안고 오늘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발족하며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 개최를 선언한다.

우리는 11월 14일 10만명을 목표로 하는 민중 총궐기를 통해, 박근혜 정권과 재벌들이 추구하는 반민중 정책에 대한 민중의 분노를 보여줄 것이다.

대회는 노동자대회, 농민대회, 빈민대회, 청년학생대회, 장애인대회 등 각계 각층의 부문대회를 개최한 뒤, 본대회로 집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다.

우리는 민중총궐기로 가는 과정에서 노동개악 저지투쟁, 각계각층의 민중총궐기 선언운동,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운동 등을 전개할 것이며, 100만 유인물 배포 등 대규모 홍보 사업, 지역농활과 현장순회, 지역별 민중 대회 등을 통해 민중을 만나고, 전국민적 “청와대로 가자” 운동을 통해 민중의 분노를 모아낼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민중이여,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

**2015년 9월 22일**

**민중총궐기투쟁본부**

## 5. 노농빈 대표자 호소문

### **11.14 민중총궐기**

### **노동자·농민·빈민 대표 호소문**

이명박근혜 정권 들어선지 8년. 이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며 우리 사회는 형식적이거나 남아있던 민중의 생

존과 민주주의를 어디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강자는 약자를 짓밟으며 약자들로 하여금 노예와 같은 굴종의 삶을 살 것인지 죽음을 택할 것인지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이 사회는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지닌 맹수만이 우글거리는 동물의 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 뒤면 형식적으로나마 남아있는 민주주의의 마저 사라질 것이며, 서민들을 위해 만들어져선 복지, 사회안전망, 공공성 등의 사회적 협약들도 휴지 조각이 되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아들딸들이 그토록 처참하고 억울하게 차가운 바다 속에 잠겨갈 때 그들은 구조를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국민과 유족을 상대로 거짓말은 물론 조용히 있으라고 겁박하기 급급했습니다. 진실규명을 외면하는 불의한 정권에 분노하고 있지만 권력의 패악질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노사의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정부는 자본의 마음을 자처하며 더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화를 노동개혁이라는 포장으로 선전하며 2000만 노동자에게 노예각서를 쓰라 강요하고 있습니다. 농민은 어떻습니까? 개방농정으로 백척간두에 놓인 농민을 더 죽이지 못해 안달입니다. 심지어 정부는 의무가 사라진 밥쌀마저 수입해 농민들의 목줄마저 끊어버리겠다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가족의 삶을 위해 차린 노점상을 폭력으로 짓밟고 부숴버리고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빚을 내서 차린 가게를 재개발이라는 명목으로 가차 없이 철거하고 빈손으로 떠나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거리로 나서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이 썩은 세상을 뒤집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에게는 희망을 주고, 이 땅의 민주주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사람사는 세상이 되도록 모여야 합니다. 11월 14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 장애인, 청년, 학생, 시민들이 모두 모여 우리의 분노를 청와대를 향해 확실히 보여줍시다.

‘못살겠다 갈아엎자’는 각오로 11월 14일 서울로 모여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2014년 10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한상균**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강다복**

**전국노점상총연합 의장 조덕휘**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위원장 김현우**

**드림**